

“전주 하계올림픽 추진, 전혀 차질 없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 국비 확대·균형발전 지원 필요성 강조… “도민의 신뢰로 추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주 중 추진되는 주요 도정 현안을 설명하며, 최근 논란이 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일정 연장과 관련해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이루어진 것일 뿐, 추진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주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이 초기 제출 이후 IOC의 내부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했다”며 “최근 IOC 수장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기준과 지침이 제시됐고, 그에 맞춰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의 재정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소멸 위험도를 고려해 지방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비 비율을 상향하고, 지방의 자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천 실장은 “농어촌과 소멸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이나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비 확대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정감사 대비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천 실장은 “국감 질의는 통상적으로 총무·인사·재정·감사 등 4~5개 분야의 자료 요청이 반복된다”며 “도는 지난 주말까지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질의서는 오늘 저녁부터 본격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그는 “완주군과의 상생 협력 방안이 이번 국감 질의에 포

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북도는 그간 양 지역의 상생발전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도민과의 소통이아말로 도정의 출발점인 만큼 전북도는 앞으로도 열린 도정을 통해 주요 현안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미래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도전”이라며 “도민의 신뢰와 협조 속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열린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에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도의회, 청렴 문화 확산 ‘정조준’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 공동 진행… 직원 화합·청렴 실천의지 다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라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참석자들은 ‘갑질’, ‘특혜’ 등 부패 행위 문구가 적힌 과녁을 사격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해 부패 근절에 대한 강

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각이 명중해 과녁이 쓰러질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으며, 청렴을 향한 도와 의회의 단결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됐다.

문승우 의장은 “청렴 정조준 공동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 역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청렴을 핵심가치로 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전북’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유아 해양안전수련원 설립을”

전북 농정 개편 등도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27일 제42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이어갔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북의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생산량 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어업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육성 △어업 인력 양성 및 복지 증진 등의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박정희(군산3)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고군산군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유재정교부금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예산 절감과 사업 추진



김만기 의원



박정희 의원



오은미 의원



임승식 의원



이명연 의원



이병철 의원

속도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비 30%·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

시적 재난으로 전북 농정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동을 위한 재정 총량 방안의 명확화, 사전 검토 절차 강화,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 개

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제적·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7일 첨단소재 기업인 ㈜티알엠과 ‘고순도 텅스텐 알티피(RTP)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산단, 첨단소재 산업 투자유치로 ‘활기’

새만금개발청·티알엠, MOU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7일 첨단소재 기업인 ㈜티알엠과 ‘고순도 텅스텐 알티피(RTP)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티알엠이 텅스텐 스크램을 재활용하여 고순도의 텅스텐 알티피(RTP)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3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공장은 새만금산단 1공구 산2-5(임대부지) 내 약 31,411.1㎡(약 9,500평) 규모 부지에 건설되며,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과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 전국 최초 온비드 압류동산 공매 진행

288건 전량 낙찰·총 2억7700만원 징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새 전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이용기관 페이지를 활용한 시·군 합동 압류물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한 결과, 총 288건이 전량 낙찰되어 2억7,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288점을 공

개 매각했다. 낙찰대금은 1억2,700만원에 달하며, 공매 이후 체납자 9명이 자진 납부한 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7,700만원이 체납액으로 총당됐다.

이번 전자공매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온비드 플랫폼을 공식 활용한 전국 최초의 합동 공매 사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방식으로 진

행됐다. 공매 현장에는 약 2,000명이 방문해 실물을 직접 확인했으며, 응찰 건수도 2,000여 건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입찰 참가자는 보증금(입찰금의 10%)을 예치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입찰이나 낙찰 포기 등으로 인한 유찰 사례를 최소화했다. 실제로 낙찰 포기로 귀속된 보증금 110만원 역시

체납세금에 충당되었다.

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감정이 500만원의 IWC 시계가 735만원에, 16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이 최고가로 각각 낙찰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매 과정에서 온비드 담당기관과 협업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지자체도 동일한 절차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수수료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매를 실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 2026년 농생명산업 예비지구 선정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김제 ‘콩팥돌’ 농공산업 거점지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개최된 농생명산업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 △김제 ‘콩팥돌’ 농공산업 거점지구, 총 2곳

을 2026년 농생명산업 예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평가에서 제기된 의견을 각 지구별 계획에

반영한 후, 2차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 타당성, 실행 가능성,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하였다. 최종 선정 기준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2개 지구가 예비지구로 확정됐다.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는 농업생산연계형 지구로서, 지역 특화 약용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융복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지역

발전 연계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 ‘콩팥돌’ 농공산업 거점지구는 농업생산연계형 지구로 기존 1차 산업인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2차·3차 산업(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으로의 확장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사업 추진 역량을 크게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전북자치도 출범,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결실’

투자 유치에서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는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전북을 방문하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신속한 행정 지원,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제정이 뒷받침된 결과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만호 기자